



즉시 배포용: 2023년 6월 27일

KATHY HOCHUL 주지사

## HOCHUL 주지사, 6월 27일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검사의 날로 발표

선언문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6월 27일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검사의 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Screening Day)로 지정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이는 전국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인식의 달(National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wareness Month)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특히 퇴역군인 등 개인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합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는 전투, 재난, 사고, 상해, 폭행 등 트라우마를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경험 또는 목격한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군에 복무한 많은 퇴역군인들이 전쟁과 관련한 트라우마성 사건을 경험한 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고 있으며, 신체, 정서, 심리적 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PTSD가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고 있습니다. 조기 진단 및 개입이 중요합니다. 검사 독려 이니셔티브를 통해 우리는 조기에 PTSD를 발견하여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정신 보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낙인이라는 장벽을 없애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치유는 인지로부터 시작됩니다."

국립 PTSD 센터(National Center for PTSD) [자가 평가](#)를 이용해 스스로 평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검사는 다섯 개의 질문으로 구성된 매우 간략한 설문지입니다. 솔직하게 이러한 질문에 답변함으로써, PTSD 가능성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세 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 전문가의 추가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Viviana DeCohen 뉴욕주 보훈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Veterans' Service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PTSD 검사의 날은 정신 건강을 위해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트라우마를 경험한 퇴역군인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자가 평가를 실시해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뉴욕주 정신보건국(New York State Office of Mental Health) 커미셔너인 **Ann Marie Sullivan**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 7%의 사람들이 삶의 특정 시점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으며, 종종 장애를 인지하지 못하고 치료도 받지 못합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검사의 날은 PTSD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PTSD 증상을 보이는 친구와 가족 모두에게 의사와 상담해 검사를 받도록 독려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정신 보건을 행정부 주요 과제로 설정했으며, 정신 진료 접근성을 개선하고 뉴욕 주민의 정신 보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10억 달러 규모의 계획을 [최근 확보](#)했습니다. 정신 보건에 대한 역사적인 투자로 인해 PTSD 환자의 지원 및 치료 등 트라우마 관련 프로그램을 포함한 외래 및 입원 환자가 늘어날 것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또한 뉴욕의 퇴역군인 정신 건강 지원을 위해 수백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이를 통해 770만 달러를 Joseph P. Dwyer Peer-to-Peer Veterans' Support Program에 지원했고, 뉴욕의 모든 퇴역군인이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동료 지원 및 자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했습니다. Dwyer Program은 비임상 지원 모델로, PTSD, 트라우마성 뇌 손상(traumatic brain injury, TBI), 자살 충동 및 기타 정신 보건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베테랑 투 베테랑(Veterans to Veterans)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2년 5월 Hochul 주지사는 또한 [워리드 어바웃 어 베테랑\(Worried About A Veteran\)](#)을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온라인 서비스로 퇴역군인 및 현직 군인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보건부와 정신보건국이 2년 이상 개발한 서비스로, 군인 가족과 간호인이 정신 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퇴역군인이나 현직 군인과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상세한 정보는 뉴욕주 정신보건국의 [PTSD 지침](#)을 확인하고 국립 PTSD 센터(National Center for PTSD)의 [리소스 페이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http://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mailto: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